

“건설업계의 블루오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의 국가 과제에 부응토록 할 터”

- 규제 청정지역 검토 등 국제적 투자처로 조성할 계획, 건설업계의 적극 참여 기대 -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초대 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만금 통’이다. 그는 2009년 2월 국무조정실의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2012년 5월까지 3년여 동안 재직하며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병국 청장은 “단장 재직 중에 새만금에 100번은 더 가봤으며, 방조제 현장에서 수많은 날을 지냈다”고 회상했다. 2012년 8월에는 새만금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오랜 기간 국무총리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조정해 온 경험도 풍부하다. 지난해 9월 새만금개발청 초대 청장으로 선임된 것도 이러한 그의 경험과 실력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주위의 기대가 큰 만큼 이병국 청장이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많다. 우선,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잠정 예산은 국비 10.9조원, 지방비 0.95조원, 민간 투자 10.33조원 등 총 22.2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 추진 방식과 전략의 보완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 개발은 긴 호흡이 필요한 중장기 계획으로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말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이병국 청장을 만나보았다. <편집자 주>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초대 청장

새만금 사업과의 인연이 남다른 데다 초대 청장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애착과 각오가 누구보다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의 초대 단장으로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사업을 담당하였고, 작년 9월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의 수장으로서 역사적 사업을 다시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청은 그동안 국토부, 산업부, 문체부 등 7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분산 추진하던 새만금지구 내 명품복합도시 용지, 산업 용지, 신재생에너지 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의 개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크고 긴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내 다른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중국 등 해외 투자 수요를 적극 끌어들이는 새로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단지를 국가간 경제협력 특구의 최초 사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사업들을 펼치셨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청 초기에 조직과 예산 등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으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여, 이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지난 반년 동안 민간 기업 등 수요자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추진 계획을 보완해 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새만금 인지도 제고,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가용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의 경우 개청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들이 가시화되어 지난해 11월 벨기에 솔베이사와 MOU(면적 6.6만㎡, 투자 예정 규모 1,210억원)를 맺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일본 도레이사와 투자 계약(면적 21.5만㎡, 투자 예정 규모 3,000억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는 OCISE에서 새만금 최초로 산업단지에 건축물 공사(열병합 발전소)를 착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말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관해 실무 협의 중이며, 그 외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추진 체계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새만금에 대한 민간 투자 의욕을 제고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조성, 단계적 개발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계획 보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변경 추진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의견

“땅을 새로이 만들어서 소유권 문제 등 복잡한 민원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시너지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 보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P의 변경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이 다소 부진한 데 따른 대응인지요?

새만금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 시각 자체를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대규모 매립 개발에 수십 년이 소요되었고,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소주 공업원구는 매립 없이 기존 토지를 개발하였음에도 1994년 착수하여 활성화되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새만금은 2010년 방조제를 준공한 이후 매립 초기 단계이므로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의도 면적의 140배(401km²)로서 서울시의 2/3에 달하는 면적을 매립하여 개발해야 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민간 투자로 조달해야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땅을 새로이 만들어서 소유권 문제 등 복잡한 민원이 없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현재, 민간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중인데 새만금을 규제 청정

지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조성하여 기업 활동, 외국인 투자 등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새만금을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기반시설을 조기 구축하는 등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아까 강조한 바와 같이 우선, 민간 투자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의 중장기 전략인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전략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청 중심의 투자 유치 기틀 확립을 위해 사업 추진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자 시각에서의 투자 환경 분석 및 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개발청의 협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 유치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새만금 투자자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국세 감면 혜택을 제도화하였고,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세 감면

“ 서울시 면적의 2/3에 달하는 매립 용지 조성 규모, 그 위에 복합도시·산업·관광 등의 용지를 개발함에 따른 건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새만금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 2선석도 우선 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조기 구축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 주십시오.

새만금 동서2축도로(19.8km, 4차로)와 남북2축도로(26.7km, 6~8차로)는 신항만과 고속도로 연결 및 산업단지, 복합도시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동서2축도로는 총사업비 3,020억원을 들여 2020년 완공할 예정인데 현재 기본설계 중입니다. 남북2축도로는 총 1조 777억원이 투입돼 동서2축도로와 마찬가지로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 역시 국내 건축·토목 수요가 급감하여 새로운 먹거리와 패러다임 발굴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향후 미국·중국 등을 연계하는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지난해 5월 이루어진 해외 기업의 의견 수렴 결과에서도 새만금은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강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면적의 2/3에 달하는 매립 용지 조성 규모, 그 위에 복합도시·산업·관광 등의 용지를 개발함에 따른 건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새만금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청은 앞으로 새만금의 가능성을 조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건설, 용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기회의 땅인 새만금에 건설업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CERIK

그러나, 기반시설의 조기 건설은 초기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조성 원가 인하 효과 등 직·간접 효과가 크므로 도로는 최대한 개통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서2축도로는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지난해 말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입찰 방식인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확정하여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6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 접근로 구간(새만금~서김제, 사업비가 총 1조 8,348억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은 동서2축도로의 개통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크루즈

글 : 이형우 편집장